

백화점들 추석 특수 잡기 경쟁

생산자 실명제 이어 유명인 추천상품까지 나와 VIP 명품·친환경 선물세트 차별화로 고객 유혹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다음주부터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들어가면서 특색있고 차별화 된 상품을 내놓고 추석특수(特需) 경쟁을 벌이고 있다.

6일 광주지역 백화점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매장에 추석 선물세트를 전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백화점들을 경쟁 매장과의 차별화로 고객을 잡기 위해 기존 생산자실명제 상품은 물론 시장·군수, 전문가 등 유명인이 추천하는 추천자실명제 상품까지 내놓고 적극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백화점과 이마트를 보유한 광주신

세계는 수요계층의 양극화에 맞춰 백화점은 고품격 상품으로 이마트는 실속 상품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백화점의 경우 한우·굴비·전복 등 기존 8개 품목이던 고품격 '5스타'상품을 이번 추석에는 자연송이·정자각·멜론을 추가해 11개 품목으로 늘렸다.

'5스타'는 신세계 바이어가 직접 생산지와 품종을 선별, 품질확인 및 검사를 거친 명실상부한 신세계의 대표 상품. 최고 등급인 1++ 등급의 한우만 엄선한 '명품목장 한우(70만원)', '명품 얼음 은빛 멸치세트(45만원)'가 대표적이다.

백화점과 이마트를 보유한 광주신

도인한 '그린스타'도 광주신세계가 자랑하는 선물세트다. 3단계 숙성과정을 거친 '목장한우 1호(30만원)', 유산균 배양액으로 키운 '죽장사과(9만5천원)', 천연 발효액으로 해충을 잡은 나주 배세트(10만원)가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이주영 한방 꽃감세트 특호(25만원)', 4세대 전통기법을 고집하는 명성식당의 '내고향 흑산도 홍어세트(35만원)'도 차별화된 상품이다.

이마트에선 대량 구매고객을 위해 '10+1' 덩 행사를 상품에 따라 9+1, 7+1, 5+1로 확대하는 한편 고호의 '해바라기', 밀레의 '건초를 묶는 사람들' 등 유명한 그림을 포장지로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명품특선세트'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명품특선세트로는 VIP 한우 명품세트(52만

원), 홍소술가 명차세트(120만원), 배금통 명품곰감 칠기세트(300만원), 황제 굴비세트(200만원)가 선보인다.

또 산청군수가 추천한 산청 꽃감세트(30만원), 김형수 서귀포시장의 옥돔 갈치세트(16·23만원) 등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장의 사진과 명함을 넣어 신뢰성을 높인 이른바 추천자실명제 선물세트도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역사시정 선물세트인 '마이 초이스 기프트'를 내놓았다. 받는사람이 선물을 선택하는 상품으로 '감사의 선물(25만원)', '정식의 선물(15만원)' 등 두가지 세트가 있다.

해당 품목은 정육·굴비·건식품·과일·와인 등 6가지로 이 가운데 1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리산 한우' 공모펀드 시대 열린다

농협·롯데마트 공동 개발 이달 하순께 80억원 규모



지리산순한한우사업단과 롯데마트, 증권사 관계자들이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우공모펀드 조인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과 롯데마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우공모펀드가 이달 하순 출시돼 본격적인 한우 펀드시대가 열린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산하 지리산순한한우사업단과 롯데마트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우공모펀드 출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9월 하순부터 메리츠증권·NH증권 창구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한우사업단과 롯데마트는 올초 한우펀드 상품개발에 합의하고, 마이에셋자문용(주)을 운용사로 하는 '롯데-농협 지리산순한한우 특별자산 투자신탁'이라는 공모형 펀드상품을 개발해 지난달 27일 금감원 승인을 받았다. 구간 지리산순한한우가 사모 형태의 펀드를 조성했으나, 일반인 대상의 공모펀드는 이번이 처음이

다.

공모금액은 80억원이며, 이 자금으로 생후 6개월령 송아지 1천 600마리를 구입해 24개월 사육한 후 이를 매각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자금이 부족한 한우사육 농가는 무상으로 송아지를 위탁받아 생산지원금으로 한우를 사육하게 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사육수수료를 받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리산순한한우는 전남 7개 지역축협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공모펀드다.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생후 30개월된 690kg 이상의 1등급 한우만 엄선해 롯데쇼핑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 납품규모는 롯데쇼핑에 월평균 300마리로, 전체 한우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 남구 투기과열지구 오늘 해제

건교부 주택정책심의위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열고 광주를 비롯, 지방의 주택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지방 주택경기 과열될 우려가 없으며 미분양으로 인한 중소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지난 6월에도 광주와 부산, 대구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주 남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동구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광주와 부산, 대구는 광주 전 지역이 아닌 중소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고려

나 수도권은 그대로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품목	단위	가격(원)	비율(%)
사과	중용5개		
배	중용5개	23,500	↓ 14.5%
단감	중용5개		
포도(거봉)	9kg		
딸기	9kg	10,000	↓ 16.7%
대추	300g		
참외	9kg	27,000	↑ 11.1%
해장고기	9kg	5,800	↓ 3.3%
참치	9kg	9,000	↓ 9.1%

올 추석 차례상 비용 11만7,500원

과일과 육류 가격 안정세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협연합회는 지난 4-5일 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 차례상 용품 2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3.5% 낮은 11만7천500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과일류는 기상여건 호조로 작황이 좋았던 덕에 사과와 배, 단감 각각 5개씩과 포도(거봉) 1kg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2만3천500원으로 작년(2만7천500원)보다 14.5% 내렸다.

/연합뉴스

유명 식품사 참기름 발암물질 검출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유명 식품기업과 마트 자체 브랜드 식용기름에서 권고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시중 유통중인 식용유지 623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30개 업체 47개 제품이 권장규격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기준을 초과한 식용유지는 참기름 28건, 고추기름 등 향미유

9건, 들기름 6건, 옥수수기름 2건, 콩기름과 기타식용유지 각 1건이었다.

유명 식품업체 S사 참기름의 경우 기준치의 8배 가까운 15.92ppb가 검출됐으며 대형 마트 자체 브랜드의 참기름과 대기업 식품회사 옥수수 기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나왔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벤조피렌 검출수준은 2.09~15.92ppb로 일반인의 식용유지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할 때 위해 발생 우려는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47개 제품의 해당 제조사

에 제조과정 개선권고와 함께 당해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하고 회수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벤조피렌은 환경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해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자연 생성되는 물질이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그룹1)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식용기름속 벤조피렌 안전관리를 위해 규격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외국에서 문제가 된 올리브유에 대해 규격(2.0 ppb)을 우선 설정한 동시에 이 기준을 식용유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격을 입안에 고하고 현재 정부 규제심사 중에 있다.

/연합뉴스



광은리더스클럽 창립...본격 활동

초대 회장에 유희열씨

'광은리더스클럽'이 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창립총회(사진)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광은리더스 클럽은 광주은행이 지역금융과 지역기업간 유대 강화 및 교류증진을 위해 출범시켰으며 광주·전남지역 기업 140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세화기계

(주) 유희열 회장을 총회 회장으로, 중흥건설(주) 정창선회장 등 11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정대서 광주은행장은 "광은리더스클럽이 지역기업들의 성장의지와 지역사랑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이 클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생산·수출 실적지표 호조속 소비자대지수 5개월째 상승

생산 및 수출 등 실적지표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대지수가 5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대지수는 전월(102.6)에 비해 0.4포인트 오른 103.0으로 5개월째 100을 웃돌았다. 계절조정을 거친 소비자대지수 역시 105.6으로 7월(103.8)보다 높아졌다.

소비자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환경,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환경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대지수는 지난해 4월 100.6에서 5월 98.0으로 떨어진 뒤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다 1년만인 지난 4월(100.1)에 다시 100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기준치를 웃돌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지도사-IT (SC-IT) 융합과정 교육생모집

SC-IT 융합과정이란?

SC(Science) : 과학지도사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
IT (Information Technology) :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SC-IT 융합과정의 특징

1. 융합과정 이수 시 SC, IT 자격을 동시에 취득 가능함
2. SC, IT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확대
3. SC, IT 자격 취득 후 취업 기회 확대

SC-IT 융합과정의 교육과정

SC-IT 융합과정의 교육장소

SC-IT 융합과정의 교육기간

SC-IT 융합과정의 교육비용

SC-IT 융합과정의 교육문의처

문의처: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센터

문의전화: ☎ 602-7402-7 FAX ☎ 602-7404

장수촌 쌀밥

100% 유기농이력관리인증

자연 그대로... 우리밥에 좋은 유기농산물입니다

장수촌 쌀밥의 특징

- 1. 100% 유기농산물 사용
- 2. 자연 그대로의 맛
- 3. 영양가 높고 건강에 좋음

장수촌 쌀밥의 판매처

장수촌 쌀밥의 문의처

문의전화: ☎ 602-522-5933